

한국 양록업 전망 및 당면과제



성 락/ 분회 사무총장

본고는 지난 9월23일 경기 양주군 소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된 양록 교육 중 분회 성 락 사무총장이 강의한 내용이다. 지난호에 이어 게재한다.
<편집자 주>

4. 한국 양록업 당면현안

1) 녹용 안정판매기반구축을 위한 노력

가. 국산녹용 한약규격품 제조

세계 녹용시장의 80%에 달하는 국내 한의약 시장과 앞으로의 잠재수요는 우리 양록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 시장의 상당부분을 국산녹용으로 채워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한약 규격품 제조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존 러시아산, 중국산, 뉴질랜드산 녹용과 품질 및 가격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시장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해결과제를 극복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분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산 동결건조녹용 규격품 제조사업은 품질 측면에서의 차별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는 단순히 건조단계에서의 차별화 적용이 아닌 생산단계에서부터 상품화 단계까지를 하나의 프로그램화하여 외국산과 뚜렷한 차별화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현재 동결건조녹용 제조사업은 건조기술에 대한 특허권 확보를 마치고 브랜드명을 '국선용'으로 하여 관계기관에 제조허가 신청을 완료한 상태이다.

나. 한의약계와의 협력 추진

국내 시장구조상 녹용은 대부분 한의원, 한방병원 등을 통해 소비되고 있다. 따라서 국산녹용 안정판매기반 구축에는 무엇보다도 한의업계의 이해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동안 양육업계는 한의업계와 소원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국산녹용을 인정받기 위해 이렇다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거대한 녹용시장을 국내에 갖고 있으면서도 단 1%도 점유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현실을 감수하게 된 것이다.

국내 사슴농가의 품질개선 노력, 연구기관을 통한 우수성 자료 확보, 한의업계와의 적극적 교류 및 홍보 등을 통해 국산녹용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나아가 소비를 유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꾸준한 생산비 절감 노력으로 외국산 녹용과의 큰 가격차를 줄이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다. 건강기능식품의 활용

지난 7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30명이 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안이 확정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1년간 하위법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작업을 거쳐 정식 발효되게 되는데, 사슴고기와 녹용·부산물 등을 이용한 가공식품 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기존 녹중탕, 녹용대보탕 등의 효능·효과를 포함한 적극적 홍보가 불가능했으나, 이 법의 제정으로 가능해졌다는 측면에서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무분별한 녹용수입 확대 저지

가. 절편녹용

수입저지절편녹용이란 녹용을 썰어 일정한 규격으로 포장한 것을 말한다. 현재 외국으로부터의 녹용수입은 전지상태로만 가능하고 용도는 원료의약품 원자재 및 수출용 가공식품 원료로만 들여올 수 있다.

녹용 최대 생산국인 뉴질랜드는 자국산 녹용이 전지로 한국에 수출돼 건조·절단·포장 단계를 거치면서 값비싼 러시아산 등으로 둔갑되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하에 절편녹용 수입허용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압력의 이면에는 현재 전지녹용 수입시 적용하고 있는 회분기준을 무용화하여 하대부위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원가를 더욱 낮추고, 한국에서의 상품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계별 비용 및 마진을 줄여 가격경쟁 우위를 확고히 다지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아울러 국내 농가들이 차지하고 있는 생녹용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전략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측면을 볼 때 절편녹용 수입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하며, 특히 국가간



무역분쟁화로 부득이 개방된다 하더라도 그 시기 및 조건, 국내농가 피해에 대한 구제방안 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 양록농가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국양록협회는 지난해 2천여 농가가 참여한 대규모 저지결의대회를 서울시내 및 과천정부청사에서 가진 바 있고, 지속적인 정부와의 협의, 뉴질랜드 양록위원회와의 대화, 뉴 정부 방문활동을 펼치는 등 사활을 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 녹용 수입 통관제도 개선

현행 수입의약품 관리규정은 관능검사 후 검사시료 채취가 끝나면 일단 통관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적합품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녹용이 시중에 유통되는 불법행위가 공공연히 이루어져 유통질서를 파괴는 물론 국산녹용 판매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3) 사슴 자가도축을 위한 법개정 추진

1998년 6월 20일 개정된 축산물가공처

리법 시행령 제 2조 제1호로 사슴이 도축대상 수축에 포함되었으나, 준비 및 홍보기간 설정 필요성에 따라 부칙 제 1조 단서조항으로 2002년 12월 31일까지 시행 유예된 상태이다.

현재 전국 1만 5천 사슴사육 농가중 약 50%, 전업규모 농가(약 7천호)의 경우 약 80%(5천6백호)가 중탕가공시설 설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녹혈소비 감소, 값싼 수입녹용 증가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를 중탕가공 판매로 대체하여 농가 총 조수입 중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가도축을 금지하게 되면 매 중탕가공시마다 멀리 떨어진 도축장 이용으로 부대비용이 발생하고, 냉장 운송차량 등이 구비되지 않아 도축 후 수송시 식육의 변질이 우려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기존 도축장에는 사슴도축을 위한 전용시설(몰이통로, 보정시설 등)이 갖추어지지 않아 실제 도축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회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농림부령)에 '사슴 자가도축 및 처리 시행요령'을 제정, 자가소비 및 자가가공 판매를 위한 자가도축 희망 농가는 간이도축 작업장 및 간이정화조 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기준을 마련(농가 재정부담 최소화 고려)해줄 것을 건의한 상태이다. 또 농림부가 지정하는 생산자단체(한국양록협회)장의 시설설

치 및 운영 확인서를 관할 시, 군에 제출함으로써 자가도축 농가자격을 부여하고, 매년 1회 이상 사슴자가도축 실시요령 및 축산물 위생 교육(생산자 단체 주관)이수를 의무화하도록 할 것도 건의했다.

아울러 생산자 단체로 하여금 적정 시설 설치 및 요령준수 여부 자율지도, 감독, 임의자가도축 행위 지도 및 고발 등 임무를 수행토록 하고 정육판매 목적 도축, 또는 가공제품용 원료용도의 대량 도축에 대해서는 자가도축 실시요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된 도축장을 통해 가능토록 규정할 것도 건의했다.

5. 양록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

1) 전업화

양록업은 사육에서 수확, 홍보, 판매에 이르기까지 농장주가 직접 나서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물론 발전을 이루어감에 따라 이들 단계가 분리되어 전문화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전업농가만이 올바른 양록업을 영위하고 소기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특히 그 동안 소외됐던 정책적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전업 양록농가를 우선 대상으로 선택할 것임은 당연하다. 또 양록업 장기발전 대책 등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전업농가를 기준으로 삼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2) 규모화

규모화는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현재 우리 농가당 사슴사육두수는 평균 17두 정도로 매우 비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태로는 농장경영계획 수립, 생산비절감, 혈통개량, 생산물 홍보 및 판매 등 합리적 경영을 이루기 위한 모든 과정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 우리나라와 경쟁해야 할 뉴질랜드의 경우 3천5백 농가에서 1백70만두를 사육하고 있어 농가당 평균 사육두수가 4백85두에 이른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3) 차별화

차별화는 본격적인 국제경쟁 무대에 뛰어들게 된 한국 양록업이 택해야 하는 유일한 생존수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넓은 국토와 사계절 푸른 조사료를 섭취할 수 있는 뉴질랜드 등과의 가격경쟁은 무모할 수밖에 없다. 물론 우리 나름대로 산림내 사육이나 부존사료 활용 등으로 생산비를 절감하는 노력을 기울여 하지는 말아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육환경 및 사료를 활용한 품질차별화에 최대의 승부수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차별화 방안은 생산단계, 수확단계, 상품화 단계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다. 생산단계에서의 차별화는 산림내 방목사육, 약초 및 약용관목류 재배 이용, 산야초 및 자연산 수목류 등 육림부산물 사료 이용 등을 꼽을 수 있다. 수확단계에

서는 적기절각, 상품성 제고를 고려한 관리(위생측면)를 들 수 있고, 상품화 단계에서는 생육용 및 동결진공건조로 차별화를 이루되 품질보증제 등을 도입하여 소비자들로부터 품질우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장치를 운용해야 할 것이다.

4) 혈통개량

국내에서 사육중인 엘크, 꽃사슴 모두 녹용생산 능력이 외국산에 뒤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북미지역 엘크의 경우 두당 평균 12kg 정도의 녹용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8~9kg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난해 북미 녹용대회에서는 73일에 절각한 6세 짜리 엘크가 22kg이 넘는 녹용생산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꽃사슴도 중국의 평균 3~5kg에 비해 우리나라는 1kg 내외로 녹용생산능력이 크게 뒤떨어진다. 따라서 체계적인 선발 및 검정, 인공수정 및 수정란이식 기술 활용 등으로 혈통개량을 추진해야 한다.

한편, 사슴은 아직 축산법상 개량대상 가축에 등재되지 않고 있어 이의 개정으로 개량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5) 사육기술

사슴사육 기술은 재래적으로 발전하여 왔기 때문에 국내 현실을 감안한 체계적 정립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 최근 농협

중앙회가 '사슴사육기술 표준'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음은 다행한 일이다.

사육기술은 녹용생산 및 녹육생산으로 이원화하여 체계화되어야 한다. 특히 녹용생산을 위한 사육기술에 있어서는 품질고급화 및 차별화 프로그램을 중점 연구하여 농가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녹육생산용 사슴사육 기술 개발에 있어서도 육질 및 생산성을 고려한 단기비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한다.

한편, 농가들은 우선 많은 종류의 조사료, 약초류 채취 및 재배, 임간방목 등 외국과 차별화된 사육방식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6) 홍보 및 판매

국산 양록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초연구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양록 자조금제도를 도입,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펴고 최대 녹용소비처인 한의업계와의 접촉을 확대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녹용판매는 소비자 직거래 및 한약재 규격품 판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많은 소비자를 농장으로 유치하려면 농가 단위의 각종 이벤트 실시, 청결한 농장 위생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역별 공동 직판장 설치, 직거래 시장 및 흡소핑 판

매 등을 통해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확대해야 한다.

한약재 규격품화는 현재 본회에서 추진 중인 동결진공건조녹용 규격품(국선용) 생산 및 한의업계 공급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한다.

7) 양록산물가공

녹용은 앞으로 한방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양분되어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외국에서는 녹용을 이용한 건강보조식품 개발이 활기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나라 소비자의 기호도를 고려한 가공제품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이와 관련 한국양록축협이 그 동안 사슴엑기스, 녹용대보원, 삼록차, 료고 등 가공제품을 개발하는 한편, 일부 업체에서 녹용분말 캡슐을 의약품으로 제조 판매하고, 녹육 통조림을 개발하는 등 산발적인 진전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가공제품 개발 및 유통체계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생산자 단체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8) 정책및제도

사슴은 가축이면서도 각종 정책수혜 대상에서 소외되어 왔다. 최근 들어 법정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변화는 있으나, 여타 축종에 비해 정책지원이 크게 부족하다. 정책측면에 있어 양록산업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조사, 외국 양록업 실태조사, 양록산물 시장 전망 및 산업가치 측정 등 기초적인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 양록산업 장기발전 대책을 수립해 농가들이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양록경영을 영위토록 뒷받침하여야 한다.

9) 생산자 단체의 기능강화

국내 유일의 양록생산자 단체인 한국양록협회는 대정부 활동을 통한 정책개발, 제도개선, 농가권익보호 등이 주요 역할이다.

협회는 지난해 절편녹용 조기수입 반대 대규모 결의대회 성공개최를 계기로 품질보증제 실시, 수입녹용 감시단 운영, 자조금제도 도입 추진, 수입녹용 감시 강화 및 검사업무 추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기존 경제사업 단체의 부실로 말미암아 부득이 사업기구를 산하에 설립해 생산물 수매 및 가공판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생산자 단체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곧 모든 양록 농가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앞으로 시행될 자조금사업 등에 있어 추진주체인 협회를 중심으로 단결하지 않으면 국제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 **한국양록**